

베니스를 걷다 건축전을 읽다

July, 2016 | 김만나 에디터

page 1 of 2

MUINE____Now, Worldwide



ITALIA Venice

베니스라는 도시는 118개의 섬이 4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수단은 배 혹은 '두 다리'뿐이지만 여름이 오기 전부터 베니스의 거리 곳곳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난 5월 첫째 주 한국보다 이른 여름을 맞은 베니스에서 제15회 베니스 건축비엔날레가 열렸다. 세계 최대의 예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는 격년으로 아트와 건축을 구분해 개막한다. 올해 건축전에서는 프리즈커상을 수상한 페루 출신의 스타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라가 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다. 주제는 '전선에서의 보고(Reporting From the Front)'로 11월까지 반년간의 대장정의 전시를 열었다. 전시는 총감독이 기획한 대형 본전시가 열리는 옛 조선소 건물 '아르세날레'와 국가관별 전시 감독과 작가들이 참여, 국가관 전시가 열리고 있는 공원 '자르디니로' 구분된다. 자르디니 공원 내 '마지막 국가관'으로 한국관이 세워진 지 올해로 21년째. 지어질 당시 '투명한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에 자연채광이 들어치는 투명 유리라 곡면으로 이루어진 벽체 구조로 지어졌다. 미술 전시에서는 여러 난관이 존재하지만, '아카이브'가 주를 이루는

베니스를 걷다 건축전을 읽다

매년 여름이면, 미술 순례자 혹은 건축 순례자들이 이 도시를 찾는다.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의 해다. 전민경 디렉터가 베니스를 걸었다.

EDITOR 김만나 WRITER 전민경(국제갤러리 대표팀원 디렉터)





건축 전시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낫다. 한국판에서는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다. 한국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집장사집에 관한 이야기'다. 이러한 집들이 넘쳐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산에 따라 기능적인 필요성만 부각된 집들 사이에서 도시 건축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김성홍 예술감독과 5인의 신진 건축가가 참여한 한국판은 건축 전시지만 작가의 관점에서 이 도시를 기록한 **전여두**의 영상 작업과 백승우의 사진 작업 등 시각예술가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기존 미술 전시는 익숙하지만, 건축을 특화한 전시는 생소하다. 두 전시가 가장 다른 점은 건축 전시에서는 아카이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집을 짓고 공간을 디자인해야 하는 건축의 경우 이를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축가의 생각을 경험해보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하여, 건축 전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내실 있는 아카이브를 얼마나 흥미롭고 창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점. 일견, 지루하고 학술적일 수 있는 일련의 아카이브들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최근 건축 전시에 예술가들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본전시에서 초대된 **최재은**의 전시는 특별하다. 베를린과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최재은은 일본 출신의 인도주의적 건축가, 시계루 반과 함께 참여했다.

남북한의 경계인 DMZ는 분단 이후 60여 년간 사람의 접근이 없었던, 초자연 지역이다. 대나무로 남북을 연결하는 공중정원을 조성하기를 제안하는 이 프로젝트는 개막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2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본전시 참여 작가 최재은과 건축가 시계루 반, DMZ 프로젝트 (Dreaming of Earth) 설치전경, 사진:김태웅, 국제갤러리 이미지 제공.
3 베니스 자르다니 공원 내 마지막 국가관으로 한국관이 세워진 지 올해로 21년째다. 4 한국관 전시 참여한 정연두 작가의 <Building Recollections> 설치 부, 사진:김승범, 국제갤러리 이미지 제공. 5.6.8 <The FAR Game: Constraints Sparking Creativity>라는 주제로 건축전에 참여한 한국관 전경. Courtesy: La Biennale di Venezia. 7 '끝나지 않은'이라는 주제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스페인 국가관 전경.



한국 프레스 중에는 이런 의견을 보인 매체도 있었다. "남북(2년 전 한국관의 전시 주제는 '한반도의 오감도였다'), DMZ 이런 소재는 이제 식상하지 않나?"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주제이지만 '베니스 비엔날레'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DMZ가 언급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또한 DMZ를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생태학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아카이브를 조성하는 일은 그간의 방치된 세월을 생각하자면, 현재 그 어떤 일보다 유의미한 일이기도 하다.

건축의 미적 디자인 혹은 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가졌던 이전에 비해 올해 건축전은 '도시 재생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도시의 난개발에 따른 현실 회복,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포용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공유 건축의 사례를 전시장에 실체화한 영국관이나 자연 재해 이후 주택 공유모형을 제안한 일본관도 같은 맥락에 존재한다. 일상에서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리지만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건축물,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삶에 대한 새로운 고찰, 알레한드로 아라베라가 언급한 대로 세상 속 숨겨진 가치가 건축을 통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시 내 중요한 변화들은 수십 년간의 단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때문에 중요한 변화를 미리 계획하고 싶다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도시들이다. 도시의 지속성과 변화에 적절한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오직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황금사자상은 국가관의 경우 '끝나지 않은(Unfinished)'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스페인관(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완성되지 않은 채 남겨진 건물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작가로는 파라과이의 컬렉티브 작가 그룹 '가비네 데 아르키텍투라'가 선정되었다.Ⓜ

사진: 김태웅, 베니스 비엔날레(2022) 한국관(2022) 최재은, 시계루 반, DMZ 프로젝트 (Dreaming of Earth) 설치전경, 사진: 김태웅, 국제갤러리 이미지 제공.